

항저우AG 한국 첫 메달 김선우 눈물 “너무 아쉬워요”



**인터뷰 중 단체전 동메달 소식에 김세희와 오열
여자 개인 은메달...“한국 선수단 첫 메달, 영광”**

한국 선수단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첫 메달을 안긴 여자 근대5종 간판 김선우(경기 도청)가 진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선우는 24일 중국 항저우의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근대5종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펜싱, 수영, 승마, 레이저 런(육상+사격) 합계 1386점을 획득, 장밍위(중국 1406점)에 이어 2위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에서 나온 첫 메달이다. 2014년 인천 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땀던 김선우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개인전 동메달에 이어 아시안게임 3회 연속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은메달이 확정된 뒤 믹스트존에서 만난 김선우는 “너무 아쉽다. 사격에서 좋지 자주 예민해진 느낌이 들었는데, 장전을 하는데 격발이 계속 나갔다. 힘이 들어간 건지, 숨해서 그런 건지 총이 문제였던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느낌이 좋았는데, 한번 무너지니까 멘탈을 잡지 못했던 것 같다”며 “사격에서 결과가 안 좋아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앞서 20일 진행된 펜싱 랭킹 라운드를 2위(255점)로 마친 김선우는 이어 승마에서도 299점을 획득해 선두권 경쟁을 이어갔다. 또 수영에선 전체 4위(2분13초61)를 기록, 283점을 더해 밴위페이(중국)에 이어 2위로 레이저 런에 나섰다. 하지만 디펜딩 챔피언 장밍위에 밀리며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김선우는 “(장밍위가 쫓아올 때) 사격만 잘 쓰고 같이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사격이 계속 어긋나면서 육상에서 잡기가 힘들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대회에 오기 전부터 몸이 안 좋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힘을 낼 수 없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 현재의 무더운 날씨도 영향을 줬다. 그는 “개인적으로 더위를 정말 많이 탄다. 예전보다 체력적으로 힘들었는데, 날씨까지 더우니까 더 힘들었다”고 했다. 한국 선수단 첫 메달을 딴 것에는 “항상 대회 때 마지막에 경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앞서 열리면서 첫 메달을 따게 됐다.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아쉽지만 값진 메달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시상대에 올라가고 싶다”고 말했다.

3회 연속 아시안게임 메달을 목에 건 김선우는 “처음에는 너무 어려서 언니들을 따라만 했던 것 같다. 두 번째는 결과들이 나오니까 부담도 있고, 욕심을 갖고 치렀던 것 같다. 그래서 펜싱에서 성적이 저조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번에는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했다. 그게 펜싱에서 좋은 결과로 시작할 수 있었고, 은메달을 따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시안게임을 마친 김선우는 내년 2024 파리 올림픽을 향해 다시 뛰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년 올림픽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 이제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선발전도 치러야 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내년 시즌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다”고 각오를 보였다. 김선우는 이어진 김세희(BNK저축은행)의 인터뷰 도중 단체전 동메달 소식이 들리자 취재진에 진짜냐고 거듭 물으며 김세희와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개인전 은메달을 땀던 김세희는 이번 대회에선 개인전 11위(1100점)에 머물렀으나, 단체전 동메달로 아쉬움을 털었다. 김세희는 “사실 승마에서 저희 중 3명이 0점이었단다”고 울먹이며 “코치 선생님들이 그래도 ‘끝까지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메달은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메달은 아니지만, 동메달을 따서 너무 기쁘다”며 “진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들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고 감사”고 감격에 찬 소감을 전했다.

24일(현지시간) 중국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근대5종 개인전 한국 여자 국가대표 김선우가 레이저런(육상+사격) 경기예를 하고 있다. 김선우는 여자 개인전 수영 284점, 펜싱 255점, 승마 299점, 레이저런 549점을 합쳐 총 1386점을 기록, 은메달을 차지했다.

뉴스

한국 펜싱 남자 플뢰레, 45년 만에 AG 개인전 ‘노메달’

27일 단체전서 대회 2연패 도전

한국 펜싱이 아시안게임 남자 플뢰레 개인전에서 45년 만에 메달을 수확하지 못했다. 이광현은 24일 중국 항저우 전자대학 체육

관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라이언 조이(홍콩)에 14-15로 졌다. 함께 출전한 임철우는 앞선 16강전에서 전이동(대만)에 14-15로 패하며 탈락했다. 이로써 남자 플뢰레는 이번 아시안게임 개

개인전 임상에 실패했다. 펜싱 남자 플뢰레 아시안게임 개인전에서 노메달에 그친 건 1978년 방콕 대회 이후 45년 만이다. 1982년 뉴델리 대회는 펜싱 종목이 빠졌고,

1986년 서울 대회부터 9회 연속 메달을 획득했다. 이 기간에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를 차지했다. 직전 대회인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선 손영기가 공동 3위에 올랐었다. 개인전에서 아쉬움을 삼긴 남자 플뢰레는 오는 27일 단체전에서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뉴스

배구 탈락에 놀란 농구 허훈 “선수들 모두 경각심 가져”

9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는 남자농구 대표팀이 12강전에서 충격적으로 탈락하며 61년 만에 노메달 수모를 겪은 남자배구 대표팀의 우울한 소식에 잔뜩 긴장했다.

추일승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23일 오후 중국 항저우국제공항에 입성했다.

2014 인천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한국은 9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을 노린다.

밝은 표정으로 입국장에 들어선 허훈(국군체육부대)은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결과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욕이 많았다. 선수들의 파이팅이 좋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주장 김선형(SK)은 “세 번째 아시안게임이다. 자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며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많이 연습했다. 돌아갈 때는 노란색(금메달)을 걸고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자배구의 조기 탈락은 선수들을 잔뜩 긴장하게 했다.

임도현 감독이 이끄는 남자배구 대표팀은 예선 첫 경기에서 약체 인도에 패한데 이어 22일 12강전에서 파키스탄에 무너져 탈락이 확정됐다. 23일 개회식이 열리기도 전에 입상 실패가 정해졌다. 충격적인 61년만의 노메달이다.

허훈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 확실히 경각심이 생겼다. ‘우리의 앞날도 이런 것 같지 않다’는 걱정도 있다”며 “배구를 보고 선수들 모두 위기 의식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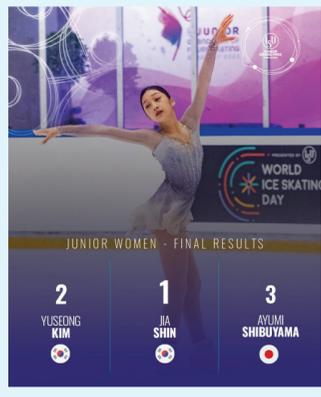
김선형도 “반면교사로 삼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소식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수들에게 경각심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했다.

추 감독은 “선수들이 아침 공항에 도착해서 뉴스를 보며 서로 배구와 관련해 소통을 하는 것 같더라. 우리가 상대하는 팀이 약체라는 선입관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추일승호는 오는 28일 인도네시아와 1차전을 시작으로 조별리그에 돌입한다. 2차전은 28일 카타르, 3차전은 30일 일본이다.

피겨 신지아, 주니어GP 5차 대회 우승

김연아 이후 18년만에 2년 연속 주니어GP 파이널 진출

한국 피겨스케이팅 차세대 여왕 신지아(15·영동중)가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에서 우승하며 2년 연속 왕중왕전 격인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를 밟았다. 신지아는 23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23-2024 ISU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3.45점, 예술점수(PCS) 61.04점을 합쳐 134.49점을 받았다. 쇼트프로그램(66.25점) 점수와 합쳐 총점 200.74점을 받은 신지아는 순위표 가장 꼭대기에 이름을 올렸다. 176.98점으로 2위인 김유성(14·평촌중)을 무려 23.76점 차로 따돌렸다.



이달 2일 끝난 주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신지아는 2개 대회 연속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2022-2023시즌 그랑프리 3차 대회 우승을 포함해 개인 통산 3번째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금메달이다. 한국 선수가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것은 2019-2020시즌의 이해인(세화여고) 이후 4년 만이다.

가장 좋은 상위 6명만 출전할 수 있는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다. 한국 선수가 2년 연속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나서는 것은 2004-2005시즌, 2005-2006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 섰던 김연아 이후 18년 만이다. 경기 후 신지아는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지난 2차 대회가 끝나고 점프 가산점과 표현력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힘썼다. 쇼트프로그램에서는 실수가 나와서 조금 아쉬웠는데,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인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2개 대회 연속 우승으로 이번 시즌 랭킹포인트 30점을 따낸 신지아는 올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출전권을 품에 안았다. 2년 연속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이다. 그랑프리 파이널은 한 시즌에 7차례 치러지는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성적이

또 “2년 연속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하게 돼 기쁘다. 파이널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홈런 3방 얻어맞은 류현진 “구속이 문제였다”

탬파베이전서 4⅓이닝 5실점

팔꿈치 부상 복귀 이후 최악의 투구를 한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구속 저하가 부진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류현진은 2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벌어진 2023 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4⅓이닝 7피안타(3홈런) 2탈삼진 3볼넷 5실점으로 부진했다.

타선 도움 덕에 패전 투수가 되지는 않았으나 팔꿈치 부상에서 복귀한 이래 최악의 투구를 했다. 복귀 이후 한 경기 최다 피홈런이고, 최다 실점이다.

류현진이 한 경기에 3개 이상의 홈런을 맞은 것은 2021년 8월 27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 이후 758일 만이다.

류현진은 1회말 상대 리드오프 안디 디아스에 좌중월 솔로 홈런을 맞았다. 시속 89.4마일(약 143.9km)짜리 몸쪽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 당했다.

이후 볼넷 2개를 내줘 2사 1, 2루를 자초한 류현진은 조시 로에 중월 3점포를 헌납했다. 로는 스트라이크존 복판에 몰린 시속 87.9마일(약 141.5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노려쳐 홈런으로 연결했다.

4회에는 선두타자 크리스티안 베탄코트에 하이패스트볼을 던졌다가 솔로 홈런을 얻어맞았다.

류현진이 무너지면서 어렵게 경기를 풀어간 토론토는 이후 6-5로 역전에 성공했으나 9회 2점을 내주고 패배했다.

캐나다 매체 스포츠넷에 따르면 류현진은 경기 후 현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상대 타자가 직구를 노리고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23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 1회 말 투구하고 있다. 류현진은 홈런 3방 허용, 4.1이닝 7피안타 5실점(5자책) 3볼넷 2삼진을 기록하며 교체됐고 팀은 8회 역전했다가 9회 6-7로 재역전패해 패전 투수는 면했다.

“첫 피홈런은 내가 원하는 곳에 던졌는데 디아스가 좋은 스윙을 했다. 두 번째 홈런은 낮게 던지려고 했고, 내가 던지려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세 번째 피홈런도 원하는 곳에 공을 던졌다”고 전했다. 이어 “속구 구속이 떨어진 것이 부진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첫 피홈런은 내가 원하는 곳에 던졌는데 디아스가 좋은 스윙을 했다. 두 번째 홈런은 낮게 던지려고 했고, 내가 던지려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세 번째 피홈런도 원하는 곳에 공을 던졌다”고 전했다. 이어 “속구 구속이 떨어진 것이 부진의 원인”이라고 짚었다.